

군민 안전 외면한 영광군의원 '빈축'

한빛원전 안전 강화 대책마련 위한 공청회 전원 불참 회기중 불구 국회의원 주관 행사 눈도장 위해 서울행

한빛원전의 안전 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역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 무관심 속에서도 성황리에 개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영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차원의 전문가 토론회를 겸한 원전 인근 3개 지역(영광·고창·대전)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원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 뿐만 아니라 강영구 부군수, 전남도 관계자들까지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 속에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30분 가량이나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근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구멍 문제를 비롯해 정비 후 재가동 중에 갑자기 정지한 2호기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규제기관이 향후 원전 전반의 안전 문제를 강화하는 최종 대책 마련을 위해 마지막 순서였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단순 설명회 성격과

사전 절차가 미흡한 채 열리려던 기존 2차례의 행사를 강력 반대한 끝에 겨우 공청회를 이끌어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이날 공청회는 지역 출신 전문가와 패널들의 날선 지적과 대안 제시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사고·고장 등으로 정지한 원전의 원인 조사에 주민 측 전문가 등의 참여 보장과 재가동할 경우 원전 소재 지자체의 동의를 얻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능 방재 및 훈련 등의 사무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로 이관하되 원안위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술전문 규제기관으로 독립해

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원안위 측은 "이번 종합대책은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세부추진 사안에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권한 강화는 법령과 제도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원안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인식은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원안위 한 관계자는 "공술인 자리에 군민대표로서 의원이 앉아 있어야 모자랄 판국인데 모두 불참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군의회 의원들의 회의 불참을 강하게 지적했다. 확인 결과, 영광군의회 의원 7명은 이날 임시회 회기중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



지난 20일 영광군청 대회의실에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지역민을 대표한 군의회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내빈석으로 마련된 공청회장 앞자리가 텅텅 비어있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회의원이 서울에서 가진 한 행사에 모두 참석하느라 공청회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원전 문제를 전담하는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하 모 위원장과 간사인 최 모 의원까지 불참하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최근 잦은 원전 문

제로 무엇보다 안전강화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기인만큼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반드시 참석해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줘야 했다"며 "국회의원에게 눈도장을 받기 위해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외면한 군의원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승남) 주최로 20일 고흥 도양읍민회관에서 열린 '해양 오염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이 서남해안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화순 출신 작가·음악인 '사회통합' 기여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전시회 주도적 역할 맡아

화순 출신 작가들과 공연단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행'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전시회에 함께 했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 지역 출신 최은숙 작가는 그림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로 올해 4년째를 맞이한 '호남권역재활병원 어울림 전(展)'에 참여했다. 어울림 전은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주최하고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관한 전시회로 장애인 작가 6명과 비장애인 작가 4명의 작품을 선보였다.

화순 출신인 최은숙 작가는 화순군의 근화(郡花)인 국화를 소재로 한 작품 '화순 국화'를 선보였다. 지난 19일 열린 전시회 개막식 식전 공연에는 화순 지역에 사는 전직 공무원, 음악 교사, 이장 등이 멤버로 활동하는 밴드 '화순 패밀리'가 멋진 공연을 펼쳤다. 화순 패밀리 멤버들은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희망을 노래하자며 재능기부 공연을 위해 결성됐다. 이날 식전 공연에서 밴드는 친숙한 70~80년대 대중가요 공연으로 많은 박수 갈

채를 받았다. 어울림 전은 광주 북구 소재 호남권역 재활병원 1층 힐링갤러리에서 오는 25일 까지 열린다. 한편 구충곤 화순군수와 군 관계자 10여 명은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 출신 최은숙 작가의 작품 활동과 밴드 '화순 패밀리'의 재능기부 활동을 응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광주에서 열리는 전시회지만, 우리 지역 예술가와 주민 밴드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고 동참하기 위해 참석했다"며 "그림과 음악을 통해 편견 없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문화 예술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남호경 기자 hknam@

"선제적 대응 위한 수산정책 변화 촉구"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주최 해양오염 토론회 환경오염원인 책임강화·재활용자원화 촉진 등 해결 모색

해양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정책 토론회가 20일 고흥군 도양읍 소재 도양읍민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장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승욱 강진군수와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역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이재기 고흥군의회 부의장의

사회로 노일상 전남도 해양보전팀장, 한해광 서남해환경센터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김재승 장흥군의원, 김창주 강진군의원, 장동범 해양수산 신지식인, 최상복 한국수산경영인 고흥군연합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승남 위원장은 "서남해안의 해양쓰레기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 수산자원 고갈, 선박 운항 장

애는 물론 지역 관광 산업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 수산정책도 오염 원인에 대한 책임 강화, 재활용 자원화 촉진,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등 사전 예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 민주당 당원들은 백광철 장흥군의회 의원의 사회로 '5·18 왜곡·망언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진태·이중명·김순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고흥=윤규진 기자 jin2001@

장흥 안양농협,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2016년 이어 두 번째...판매·유통·신용 등 전 분야 최고점

장흥 안양농협이 지난 2016년도에 이어 2018년도에도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농민출신 김영중 조합장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4년 안에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종합업적평가를 두 차례나 달성하면서 인근농협으로부터 선망에 대상이 됐다. 종합업적평가는 농협중앙회가 전국 1천127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가장 권위있는 평가로서 판매, 유통, 구

매, 신용, 교육지원 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농협에 주어지는 명실상부 농협 단체 최고의 상이다. 안양농협은 다음달 개최 예정인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우수조합장상과 우수경영자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2천만 원 상당의 차관 1대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직원 5명도 별도의 농협 중앙회장 표창을 받는다. 안양농협은 판매사업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 만족도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대체작목의 기술보급과 구매사업과 연계한 영농자재지원을 물신양면으로 도와 추진해왔으며 저금리 시대의 수익사업 다각화를 위해 보험, 카드, e-금융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호금융 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신용과 경제 종합적인 사업을 토대로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을 평가한 결과,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라는 타이틀 또한 한 거머쥐게 된 것이다. 김영중 안양농협 조합장은 "조합장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믿고 신뢰를 해주신 조합원님들을 비롯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믿고 따라준 결과"라면서 "모든 영광을 임직원과 조합원 모두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장흥=김정근 기자

사랑, 나눔, 희망에너지

가장 따뜻한 에너지 사랑입니다

경남에너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중심 경영인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시가스요금
고지서는 밀봉해서
보내드립니다.

말일
검침일 말일

도시가스 검침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공모로운 도시생활을 제공하는 기업 —
경남에너지주식회사